

여름 산사 추억



오세영 시인 · 서울대 명예교수

백담사에서 하룻밤

기회가 닿는다면 가능한 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필자이지만 여름을 산사(山寺)에서 보낸 적은 별로 없었다. 대체로 산사를 찾는 것은 적요한 공간에서 글을 쓰기 위함인데 여름 절의 산사는 관광객이나 피서객들로 번잡스럽기 그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길게 머물 경우, 대개 겨울을 산사에서 지내곤 하였다. 그러나 2-3일의 짧은 일정은 여름 산사에 머무는 것도 결코 사양할 일이 아니어서 나는 몇몇 절정에 얽힌 소중한 여름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

10여년 전인가 여름에 백담사에서 2-3일을 머문 적이 있다. 아마 매년 8월 초·중순에 개최된 어느해 만해축전 때였을 것이다. 요즘과 달리 당시의 만해 축전은 만해마을이 아니라 백담사 경내의 도량에서 열렸다. 지금의 백담사 입구에 있는 만해마을이 아직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해의 축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에 반비례해서 수용할 공간은 턱 없이 모자랐던 까닭에 참여자들은 축제 기간 동안 대개 한 방에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숙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필자 역시 요사채의 한 방에서 몇몇 시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날 밤이었다. 축제 끝 뒤풀이로 소란스러운 경내 분위기 탓에 나는 자정이 훨씬 지난 뒤에야 겨우 자리를 펴 수 있었다. 이미 두 세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쌓은 업장을 씻었다.

나는 깨우쳤다 산은 경전 계곡물 소리는 경 읽는 소리 우주는 큰 사원

고은 시인과 함께한 '업장 씻기'



그림 · 강병호

돌아보니 아, 바로 고은 선생. 선생도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다가 밖으로 뛰쳐나온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밤하늘의 별들만 올려다보았다. 그러자 먼저 침묵을 깨고 고은 선생이 건네는 말씀, "오 교수 우리 저 계곡에 가서 업이나 씻지". 내가 그 말뜻을 선택 못 알아듣지 못하고 두리번거리자 선생은 은근히 다시 독촉한다. "날이 너무 더우니 개울에 몸이나 담그자는 말일세"

그리고 보니 무척 더웠다. 그 해가 우리나라

라에서 기상관측이 실시된 이후 가장 무더운 여름이라 했다. 평소라면 시원했을 백담계곡이었겠지만 그 날 밤만큼은 온 몸이 땀으로 끈적거렸다. 내가 잠자리를 뛰쳐나왔던 것도 실은 옆에서 자는 분의 코골이소리 때문만이 아니라 후텁지근한 실내의 공기와 여러 사람의 몸에서 풍기는 땀 냄새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두 말 없이 선생을 따라 나섰다.

미명을 앞 둔 시간이라 경내에도 계곡에도

숲속에도 인적이적 없었다. 우리는 사찰에서 다소 떨어진 계곡의 후미진 소를 찾아 옷들을 미련 없이 흘랑 벗어던졌다. 그리고 별거숭이가 된 채로 물에 뛰어들었다. 처음엔 오싹했으나 잠과 몇 분을 버티니 기분이 한결 상쾌하고 상쾌해졌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아, 이 해방감! 자유! 경감하고도 청정해지기 비할 데 없는 이 마음, 신선(神仙)의 경지가 따로 있지 않을 듯 싶었다. 내 살의 오염된 때를 씻겨낸 이 맑은 백담의 물이 뼈 속까지 신선하게 스며들더니 마침내 마음의 지은 죄까지도 말짱하게 닦아주는 듯 싶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실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쌓은 업장을 씻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이 아까 '백담계곡에 내려가 업이나 씻자'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요사채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이 다시 농담을 걸어왔다. '오 교수 돈 벌기 쉽게? 우리 오늘 백담 원 벌어' 국립공원 계곡물을 오염시키면 벌금 백만 원이라 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그 돈을 우리가 번 것이라는 논리이다. 요사채에 돌아와서 나는 아예 잠들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마루에 걸터앉아 짧은 여름밤을 지냈다. 계곡의 물소리가 청명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웠다. 마치 눈이 맑은 비구니의 경전 읽는 소리 같았다. 그 순간 문득 나는 깨우쳤다. 산은 하나의 큰 경전, 그것을 감싸고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는 경을 읽는 소리. 우주는 하나의 큰 사원이라는 것을...

문화와 기부가 새 세상 열어

더프라이스 '아트광주 12' 전시참여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이스는 예술가와 기부자를 연결시키는 아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부 작가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구매하는 이는 자연스럽게 기부로 이어진다. 예술과 나눔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 깊다.

'아트광주12' 에도 더프라이스의 나눔 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9월 5-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 NGO 단체로는 처음으로 더프라이스가 전시 부스를 마련한다.

▷나무시리즈로 유명한 이명호 작가를 비롯 ▷환경 사진작가 강제욱 ▷한국의 책가도를 재해석한 임수식 작가(사진) ▷철학적 주제를 키치하게 담아내는 심아빈 작가(회화) ▷현대인의 모습을 회화한 변경수 작가(조각) 등 대표작들이 전시된다. 이외에도 더프라이스는 단체 기부상품 및 미얀마 동티모르 아프리카 등의 전통 공예품도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 출품된 이명호의 '나무'는 나무 뒤에 거대한 전을 대고 촬영한 작품이다. 이명호는 자신의 작업을 '완성' 하는 것보다는 '과정' 에 더 집중한다. 합성사진이 아닌 실제 나무 그대로를 담아냄으로써 오랜 시간을 걸쳐 생성되는 자연의 위대함을 온전히 표현해 낸다. 또한 사실적 표현주의를 표방하는 강제욱 'Asian Wall' 은 회화 같이 보이지만 회화를 벗어나고 있으며 상징과 의미로 점철된 사진 이미지를 보여준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아트광주12' 는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열리며 차별화된 아트 페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사치(Saatchi) 등 해외 유명 갤러리와 뉴욕 APT(Artist Pension Trust-작가연금신탁)를 비롯 해외 33개 갤러리 등 81개 갤러리가 참여해 눈길을 끈다. 더프라이스의 작품은 한국의 대안공간과 외국 비영리공간을 소개하는 '뮤지엄 아울렛' 코너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명호작 'Tree #1'

판화로 만나는 고암의 형형색색

이응노 '그려진 판화展'...9월 23일까지

고암 이응노의 '그려진 판화(Touching Print)展'이 삼정동 갤러리 예담 컨템포러리에서 9월 23일까지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양의 피카소라 불리는 작가의 파리 시절 판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파리시기에 정립된 판화작품들을 선보인다. 고암의 대표적인 문자추상과 군상 시리즈를 포함해 그의 손에서 태어난 다양한 이미지들이 선보인다. 회화에서처럼 힘 있는 필력은 판화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색감의 조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02)723-6033 정혜숙 기자 이응노의 'Composition'



이응노의 'Composition'

맑고 향기롭게 '문예 공모전'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이 전국 학생 문예 공모전을 실시한다. 전국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문문은

시 시조 1인 3편 이상 ▷산문은 소설 동화 1인 1편 ▷수필은 1인 2편 이상 응모 가능하다. 8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작품은 pusanmh@hanmail.net로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9월 중순이며 당선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이다. (051)898-2672

화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호국불교조계종 우란분재(백중절) 49재 영가천도



부모형제 영가천도를 보시 때문에 못하신 분들은 아래 각 사찰로 동참하시어 조상이 편안하면 나라와 가정이 태평성대하여 소원성취하옵니다 회향 : 1년에 한번 하늘이 열리는 음력 7월 15일 회향합니다

- 종 정 운송 (양산 상북면 청운사)
중앙원로위원장 대웅 (부산 진구 당감 봉주암)
중앙원로 의원 무진 (경주 황용 용수암)
중앙원로 의원 일파 (경북 청도 부야 삼화사)
중앙비구니회장 혜명 범우(부산 진구 부암 백광사)
중앙문화원장 소현 무향 (천수바라부, 살풀이)
선거관리위원장 관우 (대구 약사사)
총무국장 관음 총무과장 청곡

- 이사장 해운 (진주 봉래동 봉광사) (이사진)
중앙종회의원 범주 (양산 중부 몽불사)
수경 (김해 진영 백련암)
해공, 진우, 진여, 진설, 혜덕, 법광
총무부장 정무 도일 (부산 해운대 재승 청운암)
규정부장 수연 범승 (부산 금정 부곡 천왕사)
재무부장 묘향 (부산 수영구 망미 반야라미)
감찰부장 서암 (부산 민덕 약수사)

- 총무원장 유심 성도 (부산역 관음정사)
중앙종회의장 일봉 (경주 강동 안계 관음사)
포교원장 운암 (의령 봉수 문황사)
교육원장 법기 (양산 원동 백림사)
감사원장 청수 (양산 상북 청수사)
부산총무원장 범중 (부산 금정구 장전 법전사)
대구총무원장 의광 지현 (대구 서구 평리 약사사)
사천총무원장 무무 현수 (사천 향촌 연지암)

전국종도님, 재가법사 입종을 보살행으로 환영합니다.

종교승가 護國佛教 曹溪宗 website : bbnr.or.kr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산 36번지 청운사 총무원 : 부산 동구 초량2동 207-10번지 부산역앞 / 관음정사 051)468-5657 팩스 051)442-5659
교육원 : 양산 원동 백림사. (사)대한불교도 수련원장 : 수연 051)516-4494. (사)보성노인대학학장 : 진공 051)465-3697
부설단체 : 051)442-5658 부산대학병원신신맞기기증모임 한국대승불교실천연합 입증업체 : 신라불교미술관 무상 051)808-1273. 불교음향기기 특수제작 수봉전자 수봉 051)803-0426